

신라 하대 경장(京匠)의 동향

특히 와장(瓦匠)을 중심으로

이동주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한국고대사 전공

spa76@hanmail.net

- I. 머리말
- II. 왕경 내 운집한 기와건물과 기와 생산
- III. 생존에 직면한 경장
- IV. 맺음말

I. 머리말

기와는 목조건물의 지붕을 마감하는 건축부재로서, 주로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의 가구(架構) 구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기와를 올린 건물과 올리지 않은 건물 사이에 엄연히 격의 차이가 존재했다. 바로 권위건축물에만 한정적으로 소비되는 경향 때문이다. 신라 헌강왕이 월상루에 올라 민공(敏恭)과 나눈 대화에는 당시 왕경(王京)의 전역에 기와집이 즐비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현재 경주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고고학 성과를 감안해보면 당시의 경관은 지나친 말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신라 왕경의 호화로움은 후대인 고려¹⁾와 조선²⁾의 수도에서조차 기와가 전면 보급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운집한 기와건물의 경관을 성덕의 소치로 여긴 민공의 대답은 자신감의 발로였다고 하겠다.

후술하겠지만 헌강왕대 기사는 왕경의 호화로움을 소묘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지만, 역으로 실질적으로 기와를 제작한 공인의 입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헌강왕이 살아간 시대는 신라 하대인 9세기로, 당시 유행한 표지 기와는 세판형 수막새이다. 공교롭게도 왕경에서 사용된 기와와 동범와 혹은 동형와들이 지방에서도 출토되어 주목된다. 사실 신라 중대에도 동범관계에 있는 기와들이 지방에서 출토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비지가 사원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하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중대는 집권력이 공고한 시기이므로 기와의 보급에도 국가의 강한 통제가 수반되었을 터이지만, 하대에는 와공이 지방 호족에게 투탁(投託)하여 기와를 생산하던 정황도 확인된다. 이 점은 왕경에서 활동한 경장(京匠), 특히 와공의 동향을 짐작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방에서 확인되는 기와의 존재를 왕경 내 조업환경의 변화와 결부시켜 고구(考究)해보았다.

우선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신라 왕경 내에 기와의

-
- 1) 『宣和奉使高麗圖經』卷3 城邑; 民居. “王城雖大, 磽确山壘, 地不平曠, 故其民居, 形勢高下, 如蜂房蟻穴, 誅茅爲蓋. 僅庇風雨, 其大不過兩椽, 比富家稍置瓦屋, 然十纔一二耳.”
 - 2) 『太宗實錄』, 太宗 6年 1月 28日(己未). “始置別瓦密. 以參知議政府事李膺爲提調, 前典書李士穎·金光寶爲副提調, 僧海宣爲化主. 海宣嘗言於國曰: 新都大小人家, 皆蓋以茨, 於上國使臣往來, 瞻視不美, 且火災可畏. 若置別密, 使予掌以燔瓦, 許人人納價買之, 則不滿十年, 城中閭閻, 盡爲瓦屋矣.”

소비지 감소와 연료 부족 문제를 살펴보았다. 기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 건축부재이므로 한번 공급되고 나면 지속적인 소비가 어려운 제품이다. 아울러 기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연료가 소진되는데, 이 역시 와공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비교사적 관점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 고대의 요업유적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어 Ⅲ장에서는 왕경 내 기와건물이 운집함에 따라 실업상태에 빠진 와공들이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해상활동이나 지방의 호족들과 연계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왕경에서 확인되는 기와와 유사한 디자인의 기와가 지방에서도 확인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신라 하대의 생존에 직면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으나 한정된 자료로 인해 비약된 점이 적지 않다. 제현의 질정을 구한다.

II. 왕경 내 운집한 기와건물과 기와 생산

1. 소비지의 감소

고대사회에서 왕경은 지방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와건물이다. 현재까지 신라 왕경에서 기와가 처음 제작된 시기는 적어도 6세기 전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마니사금(祇摩尼師今) 11년(122)의 ‘비와(飛瓦)’와 조분니사금(助賁尼師今) 4년(233)의 ‘옥와(屋瓦)’ 기사가 보이지만, 당시 고구려나 백제에서조차 기와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토제소성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중고기(中古期)를 거치면서 왕경 내에는 수많은 사원이 창건되었고, 통일기에 이르러 왕경의 개조에 짝하여 관청과 궁궐이 일신됨에 따라 막대한 양의 기와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수세기 동안 기와를 소비한 결과 왕경은 축차적으로 하대에 이르러 기와건물이 운집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신라 하대 왕경의 경관을 살펴보려면 현강왕과 민공 간에 오간 대화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설명의 편의를 위해 관련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³⁾

9월 9일 왕이 좌우의 신하들과 함께 월상루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서울 백성의 집들이 서로 이어져 있고 노래와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왕이 시중 민공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간에서는 기와로 지붕을 덮고 짚으로 잇지 않으며, 솥으로 밥을 짓고 나무를 쓰지 않는다고 하니 사실인가?”

민공이 “신도 역시 일찍이 그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임금께서 즉위하신 이래 음양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변경은 평온하여 민간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덕의 소치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는 경들이 도와준 결과이지 짐이 무슨 덕이 있겠는가?”

월상루에 오른 왕과 신하들은 왕경 내 운집한 기와건물과 솥을 피워 밥을 짓는 상황을 두고 성덕을 칭송하는 주된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와가 가지는 권위적인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기와의 사용 기간이 대략 100-450년 정도 된다는 점이다.⁴⁾ 물론 450년은 극단적인 사례임이 분명하지만,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현강왕이 바라본 왕경의 경관은 기와가 민간에까지 보편적으로 보급된 최종 상황이다. 즉, 기와건물이 왕궁이나 사찰에서부터 귀족의 저택, 더 나아가 민간에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된 최종 경관인 셈이다. 그런 까닭에 이 기사는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대적인 기와의 보급은 생산자인 와공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소비해줄 주체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임을 말해준다. 즉, 와공들은 보수 정도를 위한 소규모 생산에 주력해야 될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와공은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강왕대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이 글의 기본 가설은 흔들릴 수 있다. 말하자면 액면 그대로 민간에까지 기와가 전면 보급되었느냐의 여부가 관건(關鍵)이 된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보고된 발굴성

3)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11 憲康王 6年條. “九月九日 王與左右 登月上樓四望 京都民屋相屬 歌吹連聲 王願謂侍中敏恭曰 孤聞今之民間 覆屋以瓦 不以茅 炊飯以炭 不以薪 有是耶 敏恭對曰 臣亦嘗聞之如此 因奏曰 上卽位以來 陰陽和風雨順 歲有年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娛 此聖德之所致也 王欣然曰 此卿等輔佐之力也 朕何德焉.”

4) 김성구, 『조선시대의 마루기와와 그 특성』, 한국기와학회 제11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4), 154쪽.

과를 검토해보면 신라 하대의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단정해도 좋을 듯하다. 특히 왕경의 공간 가운데 황성동이나 동천동 등 다소 격이 떨어지는 공간에서도 어김없이 하대의 기와는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강왕대 기사는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왕경 내 기와건물의 운집’이라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왕경 주변의 삼림 상황과 요업(窯業)

당시 왕경의 삼림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없다. 그래서 약간 우회적인 방법인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적용하여 신라 왕경 내 삼림, 즉 고환경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활용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가장 탁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화분 분석이다. 화분학은 고식생을 복원하여 과거의 식물생태학적 연구를 하는 것으로서 고기후 및 선사와 고대의 인간생활과 관련된 자연환경의 변화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한다. 이 분석을 통해 고식생의 환경, 기후 및 지형 등의 대기 온도와 습도 그리고 토양의 건습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 경주지역에서 이루어진 화분 분석은 수적으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화분 분석이 이루어진 곳을 대강 일별(一瞥)하면 안압지, 구황동 원지유적, 황남동, 전인용사지, 그리고 안강지역 등이다.

신라 왕경의 화분 분석 결과는 초본화분의 비율이 목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통일기에는 초본화분의 비율이 목본보다 4배나 증가하는데 인위적인 개척활동이 엿보인다. 이것이 신라 하대 멸망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목본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 초본보다 목본의 비율이 우세하게 유지된다.⁵⁾ 이 현상은 역으로 신라 하대에 이르러 왕경에서는 활발한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고학적으로도 화천리, 방내리 등 일부 가마를 제외한다면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 곳은 거의 없다. 특히 경주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 결과를 보더라도 고려기와의 출토 비율은 신라기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간 왕경에서 이루어지던 기와 생산은 하대를

5) 황상일·윤순옥, 「자연재해와 인위적 환경변화가 통일신라 붕괴에 미친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권 4호(대한지리학회, 2013).

지나면서 소비해줄 수 있는 시장이 좁아졌고, 더 나아가 연료 문제까지 난관에 부딪혀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수세기 동안 왕경의 경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산된 기와는 하대에 이르러 생산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기와는 막대한 연료가 소진되면서 생산된다. 가마 1기당 한 번 조업에 소모되는 연료의 구체적인 양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관련하여 일본 평안시대(平安時代) 법전인 『연희식(延喜式)』이 참고된다.⁶⁾

燒雜瓦一千枚料. 薪四千八百斤.

이 사료를 통해 일본에서는 기와 1,000장을 굽기 위해 연료가 4,800근이 소비됨을 짐작할 수 있다. 기와 1,000장을 1눌(訥)이라고도 하는데⁷⁾, 눌은 누리라고도 하며, 주로 1기의 가마에서 한 번의 번조(燔造)로 생산되는 양을 의미한다.⁸⁾ 물론 일본 기와와 신라 기와 사이에는 두께 차이가 있으므로 소성 시 사용되는 연료의 양은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기와를 소성하면서 소진되는 연료의 비중은 양자 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 기와를 생산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풍부한 물, 연료, 양질의 흙, 계곡풍을 이용할 수 있는 얇은 구릉, 완성품 이동이 용이한 교통로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신라시대 와요지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⁹⁾

여기서 신라 하대에 운영된 가마로 문산리, 모량리Ⅱ, 방내리, 양월리 등이 유의된다. 특히 외동 문산리에서는 나말여초에 걸쳐 조업한 기와가 마 4기가 발굴되었다.¹⁰⁾ 가마의 천장부는 토압에 의해 함몰되었지만 벽체와 내부 시설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었다. 내부와 요전부에서는 막새, 잡상을 비롯하여 다량의 평기와가 수습되었다. 이곳에서

6) 『延喜式』卷34 木工寮 作瓦.

7) 『昆侖集』卷20 遲川公遺事. “以瓦一千爲一訥. 而公常誤認一百爲一訥故云然. 人皆笑之. 方言以積爲訥.”

8) 현재 전통가마에는 보통 1,200-1,300장의 기와가 6층계로 채입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와장』(1996).

9) 박헌민, 「慶州地域 古新羅~統一新羅 瓦研究-瓦窯의 構造와 出土瓦의 流通을 中心으로」, 『기와의 생산과 유통』, 한국기와학회 제8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문(2011)을 바탕으로 추가하였음.

10) 聖林文化財研究院, 『慶州 汶山里 青銅器時代 生活遺蹟 -II구역-』, 學術調查報告 第35冊(2010).

기와를 생산한 문산리, 방내리, 양월리 와요지는 공통적으로 왕경의 중심지에서 상당히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뿔감의 안정적인 공급 문제와 관련된 것 같다. 전통가마에서 가마 불 작업은 피움불, 초불, 중불, 상불, 센불, 막음불 등 여러 단계가 있다.¹²⁾ 공정에 따라 가마 1기당 소비되는 연료의 양은 막대하다. 고려 와소(瓦所)의 해체를 고찰한 한 성과를 보면 도자기에 비해 값이 싸지만 많은 나무를 필요로 하는 기와 생산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져 조선시대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조선은 정부 주도로 와요(瓦窯)와 별와소(別瓦所)를 설치하여 뿔감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졌다는 견해¹³⁾는 경청할 만하다. 후대인 조선시대에도 뿔감인 소목(燒木) 문제는 운반과정에서 부단히 폐단이 거론되었다.¹⁴⁾

수목이 기와의 연료로 이용됨에 따라 가마를 운영하는 구릉 일대는 차례로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가령 평성궁 조영시 기와가마의 공방으로 선택된 곳은 궁의 북쪽에 위치한 기복이 심한 내량산(奈良山) 구릉이었다. 이곳은 대화(大和)와 산배(山背)의 국경(國境)에 해당하며, 평성궁 시기의 가마 수십 기가 분포하고 있다. 그중 중심지는 현재 내량시 중산정(奈良市中山町)에 위치한 가마군(群)으로 관와(官瓦)를 생산하던 곳이다.¹⁵⁾ 기와 가마는 나라산 구릉에 축조되었는데, 점차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점토의 확보보다는 연료 확보를 위해 조금씩 동으로 이동하면서 가마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¹⁶⁾ 아울러 일본 최대의 쓰에키 생산유적인 쓰에무라(陶邑)는 구릉을 경계로 계곡을

木工寮 人担에는 1인당 분당량이 女瓦(암키와) 12枚, 筒瓦(수키와) 16枚, 鎗瓦(수막새) 9枚, 宇瓦(암막새) 7枚로 규정되어 있어 근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나라시대보다 헤이안시대 기와의 규격이 약간 소형으로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延喜式』 木工寮 車載에는 수레 1대당 운반량이 “瓦一百廿枚. 筒瓦一百枚. 鎗瓦八十枚. 宇瓦六十枚”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기와의 운반 시 수레보다 인간의 동원 빈도가 높은 점은 수레가 보편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森郁夫, 「II 古代の瓦」, 『瓦』, 法政大學出版局, 2001, 154쪽)이라는 지적을 유념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와장』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신유문화사, 1996).
 13) 이정신, 「고려시대 기와 생산체제와 그 변화」, 『韓國史學報』 29(고려사학회, 2007), 87쪽.
 14) 『太宗實錄』, 太宗 9年 4月 20日(壬辰). “命勿令平民, 輸燒木于別窯. 上聞別窯燒木, 令水邊郡民輸出江邊, 又奪私船載下, 歎曰: 予意今百姓已安矣, 無乃復有如此勞民之事乎? 左右皆默然. 上乃傳旨于議政府曰: 別窯燔瓦, 只供私處之用, 其燒木出浦, 勿役平民.”
 15) 森郁夫, 「II 古代の政權と瓦」, 『日本の古代瓦』(雄山閣, 1991), 156-157쪽.
 16) 森郁夫, 「古代の瓦」, 『瓦』(法政大學出版局, 2001), 137-138쪽.

따라 동에서 서로 각각 고장사(高藏寺, TK), 도기산(陶器山, MT), 매(梅, TG), 광명지(光明池, KM), 대야지(大野池, ON), 곡산지(谷山池, TN)의 6지구로 구분된다. 해당 지구는 독립 분포하며, 이 중 대야지지구(大野池地區)는 5세기대, 곡산지지구(谷山池地區)는 7-8세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계곡 입구에서부터 조업이 시작되어 서서히 안쪽으로 공방이 이동한다. 이는 연료의 수급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¹⁷⁾ 결국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은 가마 운영상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선상에서 연료 소모와 관련된 공방 운영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신라와 유비(類比)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측면에서 가마의 이동, 즉 왕경 주변에서 더 외곽으로의 이동은 연료의 확보, 다시 말해 삼림의 고갈에 따른 이동으로 보인다. 기와를 제작하는 데 많은 흙과 연료의 소비가 동반된다. 태토가 되는 흙을 얻거나 연료인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생의 파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산지나 구릉지의 나무들은 지속적으로 제거되었을 것이다. 삼림은 자정적인 회복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남벌이 회복률을 넘게 되면 자연스레 그 주변은 황폐화되기 마련이다. 연료 수급의 곤란은 자연스레 가마가 외곽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3. 연료 수급의 곤란

왕경 내 가마의 위치, 숲의 존재를 감안하면 신라 하대에는 연료 수급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문제는 연료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문헌은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대 일본에서는 지방정부 간 주요한 분쟁으로 땀감 문제가 급부상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¹⁸⁾

河内, 和泉兩國, 相爭燒陶伐薪之山. 依朝使左衛門少尉紀今影等定, 爲和泉國之地.

17) 中村浩, 『窯業遺跡入門』(ニュー・サイエンス社, 1982).

18) 『日本三代實錄』卷2, 清和天皇 貞觀 元年 4月 21日 丙午條.

하내(河內)와 화천(和泉) 두 국(國) 사이에 가마에서 소비할 연료 확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다. 이른바 ‘도산(陶山)의 신쟁(薪爭)’이라 정의할 수 있는 사건이 그것이다. 비록 중앙 정부에서 화천국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가마 운영상 연료 확보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이다. 그리고 연료 확보를 위해 조와 작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력을 편재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도 전하고 있다.¹⁹⁾

二月作業

| | |
|------------------------|-----------------------------|
| 造瓦所別當貳人 | 判官正六位上葛井連根道 散位從八位下坂本朝臣上磨 |
| 單口漆伯玖拾參人 | 五十七人將領 二百廿五人瓦工 五百十一人仕丁 |
| 作物 | |
| 燒瓦一万五千八百八十枚 | 功一百五十六人 |
| 採瓦燒料薪九百十八荷 | 功四百五十九人 |
| 採火棹枝卅 | 功五人 |
| 修理瓦屋一字 ^{長卅五丈} | 功卅三人 |
| 開埴穴并堀埴 | 功十五人 |
| 請仕丁等養物參向大津宮 | 功八人 |
| 料理瓦工等食物 | 功卅人 |
| 運瓦寺家 | 功卅人 |

이 자료는 일본 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와 관련된 문건이다. 동대사는 성무천황의 발원으로 노사나대불을 제작하면서 752년 대불전을 완성하였는데, 그 후 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를 설치하여 동·서탑, 강당, 승방을 건립하게 된다. 제시된 자료는 대불전 외에 소비된 기와의 제작과 관련된 것인데, 현전하는 것은 천평보자(天平寶字) 6년 2월과 3월분이고, 여기서는 2월분만 전재하였다. 문서에 의하면 조와소의 총괄 책임자는 2명이며, 생산 담당 793명의 역할이 철저히 분담되어 있다. 기와 1만 5,890매를 굽기 위해 동원된 인력 156명, 연료 담당 459명, 불쏘시개 담당 5명, 기와건조장 수리 33명, 진흙 담당 15명, 인력 등 담당 8인, 음식물 담당 30명, 기와 운반 30명 등이다. 이 사료를 통해 기와 제작과 관련된 조직 운영의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조동대사사의

19) 東京大學史料編纂所, 『大日本古文書』 5(東京大學出版會, 1998), 125쪽.

2월분 인력 가운데 연료 채취에만 전체 인력 736명(장령 57명은 사무관료이므로 제외) 중 459명이나 배분되어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와 제작에 참여한 인원의 62%, 6월에 달하는 인력이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배당되었다. 기와가마를 운영하는 데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더 나아가 원거리 운반이 고려된 인원배정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라의 경우 연료 수급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현강왕대 기사 가운데 숲을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숲이 취사 연료로 사용되고 문헌에 입전된 점은 그만큼 보편화되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숲의 생산에는 막대한 산림의 황폐화가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숲이 고급 연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원낭비가 심한 결점이 있다. 무게로 따져 질 좋은 숲은 원료가 된 나무의 1/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⁰⁾ 말하자면 숲의 생산 그 자체가 산림의 남벌과 등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숲은 생산공정에 따라 불완전 연소로 인해 표면이 검은색을 띠는 흑탄과 강제로 불기를 꺼버려 표면이 백색을 띠는 백탄으로 구분된다. 백탄은 제철과 관련된 산업용으로, 흑탄은 취사와 관련된 생활용으로 사용된다. 가마 1기당 탄의 생산량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탄요의 경우 내부 면적이 16.5-19.8㎡인 가마는 탄재(炭材)가 5톤이 채워져 백탄 1,300kg, 흑탄 1,700kg 정도가 생산된다고 한다. 고대 목탄요가 현대의 것에 비해 1/4 정도 규모이므로 백탄 생산량은 1회 300kg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다.²¹⁾ 한편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에 의하면 일본 동대사 대불을 주성할 때 1만 6,656석(石)의 목탄이 사용되었다. 이를 현재의 무게로 환산하면 49만 9,680kg(약 500톤)이다. 500톤의 목탄을 생산하려면 백탄의 경우 2,000톤, 흑탄의 경우 1,500톤의 목재가 필요하다.²²⁾ 그러므로 백탄은 75%, 흑탄은 66%의 목재가 연소되고 나서야 생산되는 양이다. 물론 여기에 더해 연료용 목재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생산적인 면을 고려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여기에 더해 목탄은 줄참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소나무 등 무른 나무를 사용할

20) 박상진,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김영사, 2004).

21) 김호상, 「古代 木炭生産에 대한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26(한국고대사학회, 2002), 22쪽.

22) 김호상·황보은숙, 「신라 왕경지역 출토 고대 목탄요와 관련기록 검토」, 『선사와 고대』 24권(한국고대학회, 2006), 489쪽.

경우 탄화과정에서 탄재 대부분이 재(灰)가 되어 불량한 탄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²³⁾ 이 경우 상수리나무에서 생산되는 도토리 등은 식량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벌목되면 영양원 획득에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숯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열효율과 가벼운 무게이다. 그러므로 왕경에서 숯을 소비한다는 것은 장거리 운반이 전제된 개념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장거리에서 운반해 오기 용이한 형태로 가공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강왕대 기사는 왕경의 풍요로움을 전하고 있지만, 실상 왕경 주변의 산들이 황폐화되어, 다소 먼 거리에서 연료를 운반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이 읽힌다. 결국 왕경에서는 난방과 취사를 숯에 의존함에 따라 주변의 산림 파괴가 극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로 4인의 가족이 먹을 한 끼의 식사를 만드는 데 200g의 숯이 필요하다고 한다.²⁴⁾ 신라 전성기 호구수를 액면 그대로 17만 8,936명이라고 한다면,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데 대략 8.9톤의 숯이 필요하다. 왕경은 막대한 양의 숯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연료 수급의 어려움은 수공업품을 생산하던 기와나 토기의 공방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와를 제작하던 공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III. 생존에 직면한 경장

1. 국가재정의 악화와 빈번한 자연재해

중앙집권 국가의 권력행사는 도성 내부에서 생겨나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와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 권력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23) 김호상, 앞의 논문(2002), 21쪽.

24) 황상일·윤순옥, 「자연재해와 인위적 환경변화가 통일신라 붕괴에 미친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권 4호(한국지리학회, 2013) 주6번에서는 전성기 기사를 호수로 보고 소비량을 36톤으로 산출했으나, 여기서는 인구수로 간주하여 산출함.

특히 왕경에서 기와 생산에 종사한 장인들은 직관지에 등재된 와기전(瓦器典)이라는 관청의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행정력의 이완은 수공업 생산체제 전반에 해이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왕경에서 생산활동에 집중하던 와공들은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왕경에서 기와를 생산하던 와공들의 해체와 관련하여 당시 신라사회가 처한 시대적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신라시대 급여제도는 전기녹읍 → 축년사조(歲租) → 월봉 → 후기녹읍 순으로 변천되었다. 급여제도의 개편은 당시 정치·경제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실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녹읍은 신문왕 9년 폐지되었고, 국가권력의 민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진골귀족의 관료화 촉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가의 재정수입이 늘어나자 중앙정부는 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제도를 개편하게 되었고, 진골귀족들이 조세 수취를 매개로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녹읍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²⁵⁾ 그러던 것이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월봉제를 폐지하고 다시 녹읍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급여제를 개편하게 된다. 특히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기쁨과 기근은 재생산기반을 어지럽히는 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신라정부는 재정 궁핍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녹읍을 부활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녹읍의 부활은 중앙 재정이 궁핍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즉, 녹읍은 관리들이 군현에서 조(租)를 징수하여 녹봉으로 충당한 급여제이므로 국가가 일일이 운송이나 지급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 말 신라의 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사원에 대한 기진(寄進), 사찰의 건립에 따른 지출, 경덕왕대 행정구역 정비에 따른 행정비의 증가, 왕의 족류(族類)에 대한 녹읍에 상응하는 조(租)의 지급 등을 들 수 있다.²⁶⁾ 더구나 일본 정창원 소장 좌파리가반부속문서에 ‘六直大舍受失二石上米十七斗’란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해석이 ‘육직대사가 지난번 유고로 받지 못한 월봉 2석, (그중) 상미 17두(받음)’라는 월봉의 체불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²⁷⁾, 신라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았다고 볼 수 없다. 이로

25)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태학사, 2006), 336쪽.

26) 노태돈, 「통일기 귀족의 경제기반」, 『한국사』 3(국사편찬위원회, 1976).

27) 전덕재, 앞의 책, 352쪽.

인해 와기전 소속 경장(京匠)들의 재정상태 역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고는 볼 수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와공들은 새로운 삶을 영위하거나, 활동공간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남수(朴南守)는 8세기 말, 9세기 초엽부터 각종 역사(役事)에 동원되는 공장(工匠)들의 동원방식이 새로워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그 이전에는 ‘유사구공도(有司鳩工徒)’의 형태였다가 이때부터 ‘소피명장(召彼名匠)’, ‘초명장(招名匠)’의 형태로 동원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9세기 초엽에 이르러 공가(工價)를 받는 장인의 등장을 반영한다고 보았다.²⁸⁾ 이러한 장인의 동원방식의 변화는 공인들에 대한 국가 통제력의 이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간 공인이 가진 기술의 대가가 국가의 역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이제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의 변화는 공인의 동향을 고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와는 한번 보급되고 나면 당연히 오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기와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면 일종의 정형성이 확인된다. 즉, 7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중판타날 기와와 9세기대 등장하는 장판타날 기와로 크게 구분된다. 이 점을 보면 기와의 교체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황이 건물의 창건과 증건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왕경 내 기와의 사용 시기는 대략 150년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와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된 소비로 귀결된다. 이러한 기와 소비의 패턴이 틀리지 않았다면, 공인 특히 와공들은 기와의 소비시장이 넓은 왕경의 외곽으로 눈을 돌린 것은 어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덧붙여 와공의 이탈을 촉진한 계기로 자연재해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국사기』에 입전된 가뭄, 흉년, 역질, 홍수, 메뚜기, 지진 등 자연재해 관련 기사를 신라 전 시기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 있다.²⁹⁾ 표2와 그림1은 신라시대 각종 재해를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 신라의 전 시기를 50년을 주기로 20시기로 임의 구분하였다.

우선 그림1을 보면 자연재해의 빈도는 16-19 시기(표2의 붉은 글자

28) 박남수, 『신라수공업사연구』(신서원, 2009).

29) 윤순옥·황상일, 『삼국사기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의 자연재해와 가뭄주기』, 『대한지리학회지』 44권 4호(대한지리학회, 2009).

표2-신라시대 재해 일람표(윤순옥 · 황상일, 2009)

| 연번 | 연대 | 가뭄 | | 홍년 | | 역질 | | 홍수 | | 메뚜기 | | 지진 | |
|----|-----------|----|-----|----|-----|----|-----|----|-----|-----|-----|----|-----|
| | | 횟수 | % | 횟수 | % | 횟수 | % | 횟수 | % | 횟수 | % | 횟수 | % |
| 1 | BC57-1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 | BC14-AD36 | 2 | 3 | 1 | 3 | 1 | 6 | 1 | 3 | 1 | 6 | 1 | 2 |
| 3 | AD36-85 | 1 | 2 | 1 | 3 | 0 | 0 | 0 | 0 | 0 | 0 | 1 | 2 |
| 4 | AD86-135 | 3 | 5 | 2 | 6 | 1 | 6 | 3 | 10 | 2 | 11 | 4 | 7 |
| 5 | AD136-185 | 3 | 5 | 2 | 6 | 2 | 12 | 1 | 3 | 1 | 6 | 1 | 2 |
| 6 | AD186-235 | 3 | 5 | 1 | 3 | 0 | 0 | 3 | 10 | 0 | 0 | 1 | 2 |
| 7 | AD236-285 | 4 | 7 | 2 | 6 | 0 | 0 | 1 | 3 | 1 | 6 | 0 | 0 |
| 8 | AD286-335 | 6 | 10 | 1 | 3 | 0 | 0 | 1 | 3 | 1 | 6 | 2 | 4 |
| 9 | AD336-385 | 2 | 3 | 2 | 6 | 0 | 0 | 2 | 6 | 0 | 0 | 0 | 0 |
| 10 | AD386-435 | 3 | 5 | 3 | 8 | 1 | 6 | 0 | 0 | 2 | 11 | 4 | 7 |
| 11 | AD436-485 | 2 | 3 | 1 | 3 | 2 | 12 | 5 | 16 | 0 | 0 | 2 | 4 |
| 12 | AD486-535 | 3 | 5 | 1 | 3 | 0 | 0 | 3 | 10 | 1 | 6 | 1 | 2 |
| 13 | AD536-585 | 2 | 3 | 0 | 0 | 0 | 0 | 0 | 0 | 0 | 0 | 1 | 2 |
| 14 | AD586-635 | 3 | 5 | 1 | 3 | 0 | 0 | 1 | 3 | 0 | 0 | 1 | 2 |
| 15 | AD636-685 | 0 | 0 | 0 | 0 | 1 | 6 | 1 | 3 | 0 | 0 | 3 | 5 |
| 16 | AD686-735 | 4 | 7 | 1 | 3 | 1 | 6 | 3 | 10 | 1 | 6 | 10 | 18 |
| 17 | AD736-785 | 2 | 3 | 2 | 6 | 1 | 6 | 1 | 3 | 2 | 11 | 11 | 20 |
| 18 | AD786-835 | 9 | 15 | 11 | 31 | 2 | 12 | 2 | 6 | 3 | 17 | 6 | 11 |
| 19 | AD836-885 | 2 | 3 | 3 | 8 | 5 | 29 | 3 | 10 | 2 | 11 | 3 | 5 |
| 20 | AD886-935 | 5 | 8 | 1 | 3 | 0 | 0 | 0 | 0 | 1 | 6 | 3 | 5 |
| 합계 | | 59 | 100 | 36 | 100 | 17 | 100 | 31 | 100 | 18 | 100 | 55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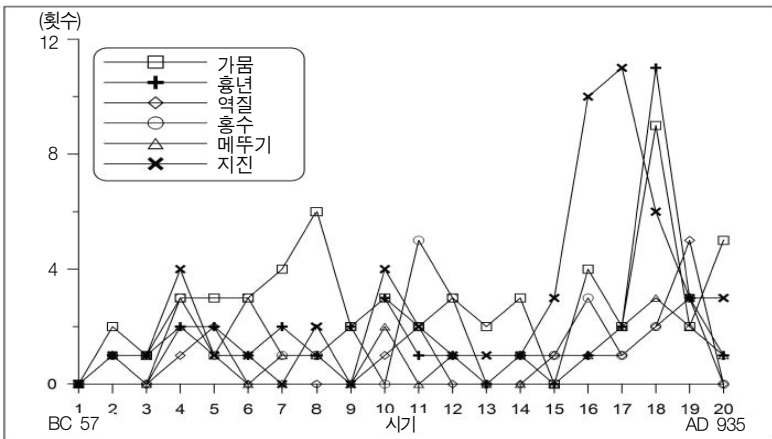


그림1-신라시대 재해 빈도 분포도(윤순옥 · 황상일, 2009)

부분)에 극에 달했다. 자연재해는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하지만 질병이나 정치적 불안정 등과 결합하면 파괴력은 배가 된다. 9세기를 전후하여 중국과 일본에서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결과 지역에 따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소하는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³⁰⁾ 당시 전염병의 유행은 국제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신라도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재해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대 말인 혜공왕대는 진골귀족들의 반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치적 파국도 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국가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왕정에 거지가 등장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신라 하대인 애장왕대 황룡사 승려 정수는 삼랑사에서 돌아오던 중 천암사(天巖寺) 문 밖에서 거지녀를 구원해주었다.³¹⁾ 그리고 진성여왕대 연권의 딸인 지은이 자신의 몸을 팔아 어미를 봉양한 일도 있다.³²⁾ 이 기사의 의도가 승려의 애민(愛民), 자식의 친효(親孝)와 관련이 깊은 것이겠지만, 신라 중앙정부가 왕정 내에 거지 문제나 일반 백성들의 자활(自活)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파악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지방은 이보다 더 비참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왕정의 침체 속에 중앙정부가 방기한 지방민들은 촌주 이하 유력자들이 결집되어 불교신앙결사를 통해 내적 결속을 이끌어내었다. 즉, 중앙권력과 지방관이 관여하지 않은 신앙결사를 이들이 주도한 것이었다.³³⁾ 이 힘은 새로운 권력으로 배태되어 후일 호족이라는 지배층을 형성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당시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정은 왕정 주변에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의 사기진작에 좋은 요소로 작용했을 리 만무하다. 왕정의 침체와 지방의 성장은 새로운 소비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을 공산이 크다.

30) 윌리엄 H. 맥닐 저, 허정 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한울, 1992).

31) 『三國遺事』 卷5 感通 正秀師救水女.

32) 『三國史記』 卷48 列傳 孝女知恩 및 『三國遺事』 卷5 孝善 貧女養母.

33) 尹善泰,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 『新羅文化』 26(新羅文化研究所, 2005).

2. 지방에서 확인되는 동범와와 동형와

지방에도 기와를 생산하던 나름의 조와집단(造瓦集團)이 있었다. 그들은 주로 지방의 관청이나 관방유적, 사찰 등의 공사에 동원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춘천(春川) 소양로요지(昭陽路窯址)에서 생산된 기와가 봉의산성이나 주변 수혈주거지로 공급된 점, 양양(襄陽) 진전사지(陳田寺址)와 속초(束草) 향성사지(香城寺址)에서 동범 수막새가 출토된 점 등이 그것이다.³⁴⁾ 특히 서울 사당동 요지 출토 ‘기촌(器村)’명 토기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장인 집단을 물품 제작 공급에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시켜 장인촌으로 재편한 신라정부의 정책적 산물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지방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조와집단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왕경에서 확인되는 기와들이 어떠한 연유로 지방에서 확인되는가에 주목해보려 한다.

하대 이전에 왕경에서 사용된 기와와 동범와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지방에서 출토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군위 인각사에서 7세기 말 월성과 안압지 등지에서 출토되는 것과 동범관계에 있는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밖에 경산 대평동 유적, 대구 상동 552-8번지 유적, 대구 신당동 건물지 유적, 청도 봉기리 유적 등에서도 동범 막새와 및 동형 막새가 출토되었다. 신라 왕경에서 사용되는 기와가 지방에서도 확인되는 이면에는 건축에 대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직접적인 보급과 관리가 이루어진 결과로 간주하였다.³⁵⁾

그리고 신라 왕경에서 출토된 기와를 경주 기와로 명명한 한 연구는 기와의 지방 확산과 그에 대한 의의를 추구(追究)하였다. 시대적 배경으로 진흥왕대를 주목하였는데, 한강 유역을 벗어나 가야와 백제지역으로 진출하던 시기였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더 나아가 문무왕대 역시 중요한 시기로 간주하였는데, 신라 왕경에서 사용된 기와가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하나의 문화요소가 이식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왕실, 행정관사, 귀족 그리고 불교계가 지방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새롭게 건설된 관청, 사원 등지에 자신들의 권위를

34) 최영희, 「강원의 기와-조와기술을 통해 본 지방 수공업체계의 형성과 전개」, 『강원의 신라, 문화와 역사』(국립춘천박물관 외, 2013).

35) 양종현, 「신라기와의 지방확산에 대한 검토」, 『문화재』 45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기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³⁶⁾ 그런데 하대 이전 지방에서 출토되는 기와, 즉 왕경 출토 기와의 동범 혹은 동범관계에 있는 것들은 지속적인 흐름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대 기와의 전형인 호박씨문 기와의 확산과는 개념을 달리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신라 하대인 9세기대 기와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전의 화려한 연잎과는 별개로 그 형태가 크게 쇠퇴하였다. 이 기와는 꽃잎의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호박씨를 닮았다고 해서 호박씨문 기와로 불리며, 혹은 국화형 연화문이라고도 한다.³⁷⁾ 그리고 제작기법상으로도 수키와는 외면이 각이 져 있고, 와도 분할이 한쪽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다른 한쪽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서로 엇갈리게 분할된 것이 특징이다.³⁸⁾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작기법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계승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제작기법이 구사된 기와가 확인된다는 사실을 통해 동일한 기술기반을 가진 집단의 활동 흔적과 시기성을 추출할 수 있다. 표3은 왕경과 지방에서 출토된 하대 기와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동범과 혹은 동형와의 판정 기준은 이중으로 구성된 연화문, 연꽃이 호박씨처럼 투박하게 표현된 점, 연잎 중앙인 중방(中房) 부분이 연자(蓮子) 없이 구슬처럼 단순하게 처리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울산 입암리 유적은 적심 건물지는 검출되지 않았고³⁹⁾, 기와의 대부분이 수혈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중방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수혈 45호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신라 하대의 시기성을 갖는 것이다. 다만 인근 500m 지점에 입암리 사지가 존재하므로 이곳에서 사용된 기와가 이곳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포항 인덕동 유적에서는 기와 건물지가 모두 10동이 확인되었다. 공반유물을 통해 건물지의 초창 시기를 가늠해본 결과 3·4·7·8호는










36) 차순철, 「경주기와의 지방확산과 그 의의」, 신라사학회 제114회 정기발표회 요지문(2012).

37) 金有植, 『新羅瓦當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2010), 61쪽.

38) 최맹식, 「백제 및 통일신라시대 기와문양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호남고고학보』 13(호남고고학회, 2001), 144쪽.

39)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立岩里遺蹟』, 學術調查報告 第78冊(2010).

표3-왕경 및 지방에서 출토된 신라 하대 기와

| | | | |
|----|--|--|--|
| 왕경 |  |  | |
| | 경주 양월리 와요지 | 경주 화곡 와요지 | |
| |  |  | |
| | 경주 방내리 와요지 | 경주 금장 와요지 | |
| 지방 |  |  | |
| | 울산 입암리 | 포항 인덕동 | |
| |  |  |  |
| | 울진 덕천리 | 울진 구산리 | 남원 실상사 |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9·10호는 고려시대, 1·2·6호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속했음이 확인되었다.⁴⁰⁾ 보고자는 건물지의 초축연대를 7세기 말로 보았는데, 3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신라 하대의 전형적인 양식의 기와이다. 그리고 공반 유물을 고려해보면 신라 중대가 아니라 신라 하대의 기와, 소위 외면이 각진 수키와 등이 보이므로 건물지의 연대는 나말여초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건물지의 성격도 원(院)이나 역(驛)보다는 오히려 호족의 거관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4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浦項 仁德洞 遺蹟』, 學術調查報告 第176冊(2006).

왕경에서 확인되는 수막새가 포항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주목된다.

울진 덕천리 유적은 복합유적이다. 고분군과 수혈, 건물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5 지점에서는 통일신라 말에 창건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⁴¹⁾ 건물지는 2동이 확인되었는데 T자형 구조를 하고 있다. 수키와의 외면이 각이 져 있고 수막새의 경우 일명 호박씨문으로 불리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세기로 연대를 비정할 수 있다. 기와는 건물지 외곽에 가마를 조영하여 공급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 왕경에서 확인된 신라 하대의 전형적인 유형이 검출된 현재로서는 최북단의 유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신라가 북쪽으로 가기 위한 간선도로인 북해통(北海通)이 지나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즉, 영덕-영해-울진-죽변-삼척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건물지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찰이라기보다는 지방 유력자의 거소(居所)로 추정된다.

한편 울진 구산리 유적은 사지(寺址)이다.⁴²⁾ 전청암사(傳靑巖寺)로 불렸는데, 명문 기와 가운데 ‘대백사(大百寺)’라는 명칭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최종 가람과 그 이전 시기의 유구로 나뉘는데, 조사는 최종 가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최종 가람 이전 시기의 유구에서 금동불과 중관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되었는데 8세기 말에서 9세기로 추정된다. 여기서 확인된 수막새의 모티브가 왕경에서 제작된 것과 유사하다.

한편 남원 실상사에서 출토된 기와는 이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56%)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기와 문양이다. 시기를 통일신라 말로 보고 있어서 창건기의 기와로 판단된다.⁴³⁾ 그러면 중앙에서 활동한 와공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활(自活)했을까? 가장 먼저 거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에게 투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3. 호족에게 투탁한 와공

연료 문제와 국가재정의 비건전성, 자연재해 등의 악재는 왕경에서 기와 생산에 종사하던 와공들에게 새로운 소비지로 눈을 돌리게 한

41) 聖林文化財財院, 『蔚珍 德川里 統一新羅-朝鮮時代 生活遺蹟』, 學術調查報告 第90冊(2014).

42) 慶州大學校博物館, 『蔚珍 九山里 傳靑巖寺址 發掘調查報告書』, 學術研究叢書 第7冊(2008).

4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實相寺 II』, 學術研究叢書 第38輯(2006).

주요 변수였을 터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공교롭게도 9세기에 이르면 왕경에서 소비된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기와가 지방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와의 이동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제작한 인간의 이동이 상정된다.

왕경에 기와건물이 운집하게 되자 와공들은 지방으로 눈을 돌리거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인물들은 주로 지방의 호족들이었다.⁴⁴⁾ 지방의 유력세력들은 자신들의 거관을 기와로 장엄(莊嚴)하면서 한층 권위의식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 영동 계산리 유적 출토 명문 기와가 유의된다. 기와의 명문은 2행 중서로, ①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 ② 竹州瓦草匠水鳥水洗矣이다.⁴⁵⁾ 명문의 내용은 ①의 경우 기와의 제작일을 연호(太平興國), 연월일(七年壬午三月日)의 순으로 나열하였고, ②는 행정구역(竹州), 장인 명칭(瓦草匠), 이름(水鳥, 水洗), 종결어(矣)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명문을 2행 모두 유기적으로 풀어보면 “태평흥국 7년(982년, 세차(歲次)가 임오(년인) 3월 일, 죽주의 와초장은 수오와 수완이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영동 계산리 유적이 사찰이나 지방 관부가 아닌 호족의 거관(居館)으로 이해⁴⁶⁾됨에 따라 이 와공들은 죽주를 기반으로 둔 호족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죽주는 궁예가 세달사를 떠나 태봉을 건국하기 전까지 기왕의 유력 호족인 기훤(箕萱)의 근거지였던 점⁴⁷⁾에서 나말여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기와가 사용되었던 곳이 호족의 거관이었으므로 당시 기와를 제작하던 공인들은 호족적 기반을 둔 생산체계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제어력이 약해진 틈바구니에 호족세력의 성장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 각 지역 호족들의 생산기반에 속한 공장들은 주로 신라의 중앙 제어력이 이완되는 사이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향후 고려의 관청수공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44) 신라 왕경 내 기술자들이 강제적으로 유출된 사례도 확인된다. 『三國史記』卷50 列傳 10 甄萱. “又取國帑珍寶, 兵伐, 子女, 百工之巧者, 自隨以歸.”

45)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永同 稽山里遺蹟』, 學術研究叢書 第5輯(2002). 이 밖에 동일한 기와가 출토된 유적으로 永同 邑城, 永同 錦城寺, 安城 奉業寺址, 安城 長陵里寺址 등이 있다.

46) 위의 보고서, 189쪽.

47) 『三國史記』卷50 列傳 第10 弓裔;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푸른역사, 2007).

중추가 되었다. 고려는 지방의 통합을 통해 건국을 하였고, 지방 호족들이 보유한 인적 구성을 고스란히 국가로 이관시켰기 때문이다.

4. 해상활동에 종사한 와공

한편 와공이라는 본업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인물도 확인된다. 우선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의 기록을 보자.⁴⁸⁾

신라인 20명을 보내어 여러 국에 배치하였다. […] 潤淸 등 신라인은 공금을 약취한 혐의를 뒤집어썼다. […] 潤淸, 長焉, 眞平 등은 기와를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므로 預陸奧國 修理府 料造瓦事에 나아가 기와를 잘 만드는 자로 하여금 서로 좇아 傳習하도록 하였다.

윤청(潤淸) 등 신라인이 대재부의 공금(貢錦)을 약탈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육오국(陸奧國)으로 강제로 이주된 이야기를 적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청, 장언(長焉), 진평(眞平)은 기와를 잘 만들어 육오국의 수리부에 배치된다. 이들이 수리부에 배치된 데에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일본은 9세기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869년 5월 26일 발생한 육오국의 대지진은 사상 최악이었다.⁴⁹⁾ 가옥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람부터 갈라진 땅속으로 매몰된 사람, 우마(牛馬)나 창고의 손상에 이르기까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더구나 지진 해일(쓰나미)로 인해 익사한 인원만 공식 집계로 1,000명에 육박하였다.⁵⁰⁾ 그래서 중앙정부는 869년 9월 7일 정사(正使) 1명과 판관(判官) 1인, 주전(主典) 1인으로 구성된 '검육오국지진사(檢陸奧國地震使)'를 육오국에 파견한다.⁵¹⁾ 이들은 그곳에서 위

48) 『日本三代實錄』卷18, 清和天皇 貞觀 12年 9月 15日條, “十五日甲子. 遣新羅人廿人. 配置諸國. […] 潤淸等處於彼國人掠取貢錦之嫌疑. […] 潤淸, 長焉, 眞平等. 才長於造瓦. 預陸奧國修理府料造瓦事. 令長其道者相從傳習.”

49) 정순일이 정리한 재해 일람표를 참고하면 당시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 8.3의 강진이었다. 정순일, 「9세기 후반 큐슈지역의 신라인집단과 그 행방」, 『先史와 古代』 39호 (2013), 285쪽.

50) 『日本三代實錄』卷16, 清和天皇 貞觀 11年 5月 26日條, “廿六日癸未. 陸奧國地大震動. 流光如晝隱映. 頃之. 人民叫呼. 伏不能起. 或屋仆壓死. 或地裂埋殮. 馬牛駭奔. 或相昇踏. 城墻倉庫. 門櫓倉壁. 頽落顛覆. 不知其數. 海口哮吼. 聲似雷霆. 驚濤涌潮. 汜洄漲長. 忽至城下. 去海數百里. 浩々不弃其涯涘. 原野道路. 忽爲滄溟. 乘船不遑. 登山難及. 溺死者千許. 資產苗稼. 殆無孑遺焉.”

로와 세금의 감면, 피해의 조사를 실시하였다.⁵²⁾ 그 결과 870년 9월 15일에 이르러 대재부의 관내에서 비단을 도적질한 혐의가 있는 신라인 가운데 10명을 육오국으로 이주시키고, 그 가운데 기와를 잘 만드는 사람인 윤청, 장언, 진평을 육오국의 수리부(修理府)에 배속시킨 것이다. 기와를 전습시키게 했다는 점에서 다량의 기와를 생산하여 피해를 복구하려던 중앙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지진 복구용 기와는 선대시태원(仙臺市台原)·소전원구릉요적군(小田原丘陵窯跡群)과 이부정춘일(利府町春日)·대택와요적군(大澤瓦窯跡群)에서 생산되었다. 특히 소전원요적군(小田原窯跡群)에서는 신라계 문양의 보상화문 암막새와 연주문 수막새가 새로이 생산되어 다하성(多賀城)과 부속 사원(寺院), 육오국분사(陸奧國分寺), 육오국분니사(陸奧國分尼寺) 등의 수복에 사용되었다는 견해⁵³⁾는 당시 신라 와공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사를 통해 9세기 신라 와공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갔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윤청 등은 오랜 시간을 교관(交關)에 종사하면서 대재부의 상황을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었다.⁵⁴⁾ 일본 측에서 첩자로 오해받은 것도 모두 일본 본토에 오랜 기간 체재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이었다. 이 당시 신라와 일본의 교역 형태는 대재부 교역이었다.⁵⁵⁾ 즉, 이들의 교역 형태는 중앙정부의 직할 관리 아래 신라 상인과 벌인

51) 『日本三代實錄』卷16, 清和天皇 貞觀 11年 9月 7日條, “七日辛酉, 新撰貞觀格十二卷頒行内外, 從五位上行左衛門權佐兼因幡權介紀朝臣春枝爲檢陸奧國地震使, 判官一人, 主典一人.”

52) 『日本三代實錄』卷16, 清和天皇 貞觀 11年 10月 13日條, “十三日丁酉, 詔曰, 義農異代, 未隔於憂勞, 堯舜殊時, 猶均於愛育, 豈唯地震周日, 姬文於是責躬, 早流殷年, 湯帝以之罪己, 朕以寡昧, 欽若鴻圖, 脩德以奉靈心, 莅政而從民望, 思使土之內, 同保福於遂生, 編戶之間, 共銷於非命, 而惠化罔孚, 至誠不感, 上玄降譴, 厚載虧方, 如聞, 陸奧國境, 地震尤甚, 或海水暴溢而爲患, 或城宇頽壓而致殃, 百姓何辜, 罹斯禍毒, 憮然愧懼, 責深在予, 今遣使者, 就布恩煦, 使與國司, 不論民夷, 勤自臨撫, 既死者盡加收殮, 其存者詳崇振恤, 其被害太甚者, 勿輸租調, 鰥寡孤, 窮不能自立者, 在所斟量, 厚宜支濟, 務盡矜恤之旨, 俾若朕親覲焉.”

53) 梶原義實, 「國分寺瓦屋と瓦陶兼業窯」, 『日本考古學』19(2005).
進藤秋輝, 「貞觀の大地震と多賀城復興」, 多賀城ロータリクラブ創立 40周年記念講演會資料(2012).

54) 윤청 등 일행의 성격을 공인이 상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보는 견해와 전문 기술을 가진 승려로 보는 견해로 구분된다. 전자는 박남수, 앞의 책. 후자는 김창겸, 「9세기 신라인의 日本沿岸 출몰과 일본의 대응」, 『신라인과 일본 고대사』(신라사학회, 2012).

55) 李成市 저, 김창석 역,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청년사, 1999).

것이다. 그러므로 윤청의 사례는 신라 와공 출신이 일본과의 교관(交關)으로 생활을 영위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 윤청 등이 활동한 시기에는 신라의 지방에도 기와건물이 흔치 않았다. 그들이 어느 지역의 출신인지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수기술자들이 비숙련 노동자와 관사 노비를 활용하여 생산품을 완성하는 공정을 감안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상위 기술자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지인을 전습하도록 역할이 주어졌고, 윤청, 장언, 진평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한식(漢式) 스타일이라는 점, 그리고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 실력이나 국제무역의 수완을 염두에 두면 그들은 왕경에서 활동했을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9세기 무렵 일본으로 과도하게 넘어가는 신라인들을 일본정부에서는 ‘신라 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짝하여 9세기 무렵 일본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일본의 제와술은 6세기 말 백제에서 전래된 이후 하나의 원통에서 4장의 기와를 분할해 내는 통권작법(桶卷作法)이었다. 그런데 8세기 이후가 되면 근기(近畿)지방에서 암키와를 1장씩 짝어 만드는 일명 일매작법(一枚作法)이라는 일본 독자의 제와술이 등장한다. 이 기법이 일본 열도 전역으로 퍼지면서 고유의 제작기법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대표적인 제와술인 통권작법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9세기가 되면서 북부 구주에서 통권작법으로 제작된 기와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전파 배경에는 위에서 제시한 870년 기사나 9세기 신라인의 표착 및 귀화 기사를 거론할 수 있다.⁵⁶⁾ 말하자면 새로운 제작방식을 구사한 기와의 등장은 사람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라 하대 와공들은 자활을 위해 지방의 호족에게 투탁한다든지, 해상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구가하였다. 이 외에 지방사찰에 종속된 경우, 지방관청에 소속된 경우 등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차후 와공의 존재 양상에 대해 좀 더 보완해보려 한다.

56) 栗原和彦, 「大宰府出土瓦に見られる朝鮮半島統一新羅時代文化の影響」, 『九州歴史資料館研究論集』 26(2001); 吉井秀夫, 「암키와 제작기술의 변천을 통해서 본 9·10세기 한일교류사 연구서설」,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諸像』, 해상왕 장보고 국제공동연구 논문집(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8).

IV.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신라 하대 왕경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한 기와들이 공교롭게도 지방에서 출토되는 현상에 대해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보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현강왕 6년조에는 왕의 성덕을 운위하면서 민간에까지 기와와 솥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왕경의 태평성대를 다루면서 흔히 회자되는 내용이지만, 기와의 교체주기를 감안하면 이 기사는 와공의 실업상태와 등치된다.

덧붙여 기와는 막대한 연료를 소진하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현강왕대에는 민간에까지 기와가 보급되었지만,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소성 작업으로 인해 삼림은 필경 황폐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신라 하대에 조업 중인 기와가마들이 왕경의 외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던 상황과도 부합한다. 더구나 솥으로 밥을 짓는다는 사실은 연료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비치지만, 이 역시 원거리 이동이 고려된 조치였다. 생활용 목탄인 흑탄은 66%가 타 버리고 나서야 생산되는 것이다.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먼 거리에서 수송했던 정황이 읽힌다. 신라 하대 왕경 주변에서 기와를 생산하는 여건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연료 수급에서 상당한 악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왕경 주변에서 기와가마를 운영하던 장인들은 연료 문제와 수요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왕경에 기와건물이 민간에까지 운집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들은 새로운 삶을 구가하려 하고, 사찰이나 지방의 유력 호족에 투탁하여 그들의 거소를 기와로 장엄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물적 자료가 바로 왕경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범 혹은 유사한 디자인의 기와가 지방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아울러 국외로 눈을 돌린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일본과 교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새 삶을 구가하였는데,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다시 그들이 체득한 기술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에 전하는 869년 최악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육오국의 다하성(多賀城)과 부속 사원(寺院), 육오국분사(陸奥國分寺), 육오국분니사(陸奥國分尼寺)가 초토화되자 기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일본에서 교관업무

를 수행하던 전직 외공들은 다시금 불려가 기와를 만들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신라 하대 실업상태에 빠진 외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생계를 잇다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아도 그리 무리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昆侖集』, 『三國史記』, 『三國遺事』, 『宣和奉使高麗圖經』, 『延喜式』, 『日本三代實錄』, 『朝鮮王朝實錄』.

2. 논저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와장』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신유문화사, 1996.
金有植, 『新羅瓦當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0, 61쪽.

김성구, 『조선시대의 마루기와와 그 특성』. 한국기와학회 제11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4, 154쪽.

김창겸, 「9세기 新羅人の 日本沿岸 출몰과 일본의 대응」. 『신라인과 일본 고대사』, 신라사학회, 2012.

김호상, 「古代 木炭生産에 대한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22쪽.

김호상·황보은숙, 「신라 왕경지역 출토 고대 목탄요와 관련기록 검토」. 『선사와 고대』 24권, 2006, 489쪽.

노대돈, 「통일기 귀족의 경제기반」.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76.

박남수, 『신라수공업사연구』. 신서원, 2009.

박상진,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 김영사, 2004.

박현민, 「慶州地域 古新羅-統一新羅 瓦研究-瓦窯의 構造와 出土瓦의 流通을 中心으로」. 『기와의 생산과 유통』, 한국기와학회 제8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문, 2010.

양종현, 「신라기와의 지방확산에 대한 검토」. 『문화재』 45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윌리엄 H. 맥닐 저, 허정 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1992.

尹善泰,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 『新羅文化』 26, 2005.

윤순옥·황상일, 「삼국사기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의 자연재해와 가뭄주기」. 『대한지리학회지』 44권 4호, 2009.

이병희, 「朝鮮前期 別瓦窯의 기와 생산과 僮侶」. 『靑藍史學』 23輯, 2014.

李成市 저, 김창석 역,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이정신, 「고려시대 기와 생산체제와 그 변화」. 『韓國史學報』 29, 2007, 87쪽.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2006, 336쪽.

정순일, 「9세기 후반 큐슈지역의 신라인집단과 그 행방」. 『先史와 古代』 39호, 2013, 295쪽.

차순철, 「경주기와의 지방확산과 그 의의」. 신라사학회 제114회 정기발표회 요지문,

2012.

최맹식, 「백제 및 통일신라시대 기와문양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호남고고학보』 13, 2001, 144쪽.

최영희, 「강원의 기와-조와기술을 통해 본 지방 수공업체계의 형성과 전개」. 『강원의 신라, 문화와 역사』, 국립춘천박물관 외, 2013.

황상일·윤순옥, 「자연재해와 인위적 환경변화가 통일신라 붕괴에 미친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권 4호, 2013.

吉井秀夫, 「암기와 제작기술의 변천을 통해서 본 9·10세기 한일교류사 연구서설」.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諸像』, 해상왕 장보고 국제공동연구 논문집, 2008.

東京大學史料編纂所, 『大日本古文書』 5.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8.

梶原義實, 「國分寺瓦屋と瓦陶兼業窯」. 『日本考古學』 19, 2005.

山本崇, 「一九七七年以前出土の木簡」. 『木簡研究』 30, 2008, 192쪽.

森郁夫, 『日本の古代瓦』. 東京: 雄山閣, 1991, 156-157쪽.

_____, 『瓦』.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001, 137-139쪽.

栗原和彦, 「大宰府出土瓦に見られる朝鮮半島統一新羅時代文化の影響」. 『九州歴史資料館研究論集』 26, 2001.

中村浩, 『窯業遺跡入門』. 東京: ニュー・サイエンス社, 1982.

進藤秋輝, 「貞觀の大地震と多賀城復興」. 多賀城ロータリクラブ創立40周年記念講演會資料, 2012.

3.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實相寺II』. 學術研究叢書 第38輯, 2006.

慶州大學校博物館, 『蔚珍 九山里 傳青巖寺址 發掘調査報告書』. 學術研究叢書 第7册, 2008.

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 芳內里 生活遺蹟』. 學術調査報告 第134册, 2007.

聖林文化財研究院, 『慶州 汶山里 青銅器時代 生活遺蹟 -II구역-』. 學術調査報告 第35册, 2010.

聖林文化財研究院, 『慶州 花谷里 生活遺蹟』. 學術調査報告 第73册, 2012.

聖林文化財研究院, 『蔚珍 德川里 統一新羅-朝鮮時代 生活遺蹟』. 學術調査報告 第90册, 2014.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立岩里遺蹟』. 學術調査報告 第78册, 2010.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주의 문화유적XII -경주 양월리 463-6번지 내 유적-』. 201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浦項 仁德洞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176册, 2006.

한빛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공사(제4공구) 부지 내 문화 유적발굴조사 결과서(5차)」, 2013.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永同 稽山里遺蹟』. 學術研究叢書 第5輯, 2002.

국 문 요약

『삼국사기』 신라본기 헌강왕 6년조에는 왕의 성덕을 운위하면서 민간에까지 기와와 솥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왕경의 태평성대를 다루면서 흔히 회자되는 내용이지만, 기와의 교체주기를 감안하면 이 기사는 와공(瓦工)의 실업상태와 등치된다.

기와는 막대한 연료를 소진하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헌강왕 대에는 민간까지 기와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소성 작업은 필경 삼림의 황폐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은 신라 하대에 조업 중인 기와가마들이 왕경의 외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던 상황과도 부합한다. 더구나 솥으로 밥을 짓는다는 사실은 연료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비치지만, 이 역시 원거리 이동이 고려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생활용 목탄인 흑탄은 66%가 타 버리고 나서야 생산되는 것이다.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먼 거리에서 수송했던 정황이 읽힌다.

신라 하대 왕경 주변에서 기와를 생산하는 여건은 그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악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왕경 주변에서 기와가마를 운영하던 장인들은 연료 문제와 수요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왕경에 기와건물이 민간까지 운집한 상황에 이르러 이들은 새로운 삶을 구가하려 하고, 사찰이나 지방의 유력 호족에 투탁하여 그들의 거소를 기와로 장엄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물적 자료가 바로 왕경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범 혹은 유사한 디자인의 기와가 지방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아울러 국외로 눈을 돌린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일본과 교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새 삶을 구가하였는데,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다시 그들이 체득한 기술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에 전하는 869년 최악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육오국(陸奥國)의 다하성(多賀城)과 부속 사원(寺院), 육오국분사(陸奥國分寺), 육오국분니사(陸奥國分尼寺)가 초토화되자 기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일본에서 교관업무를 수행하던 전직 와공들은 다시금 불려가 기와를 만들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신라 하대 실업상태에

빠진 와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생계를 잇다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아도
그리 무리한 발상은 아닐 것이다.

투고일 2015. 9. 18.

심사일 2015. 10. 20.

게재 확정일 2015. 12. 2.

주제어(keyword) 현강왕(King Heongang's), 와공(roof tile makers), 실업(unemployment),
연료(fuel),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History of Three Reigns of Japan*)

Background in the Spreading of Roof Tiles in Provinces of Late Silla

Lee, Dong-joo

In the Annals of Silla in the *Samguksagi*(三國史記), there is a story about using roof tiles and charcoal even by the public in the 6th year of King Heongang's flourishing and stable reign. As usually mentioned when dealing with peaceful reign in the royal capital, the replacement period of roof tiles faithfully shows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roof tile makers.

Manufacture of roof tiles consumes huge amount of fuel. As a result, in the era of King Heongang, most of the public used roof tiles. It is assumed that the firing works for centuries must have devastated forest. This coincides with the situation that the tile-kilns in business slowly moved towards outside of the royal capital in the late Silla. Furthermore, cooking with charcoal may seem like an effective way of using fuel, but this seems to have been just a method for long distance movement. The black charcoal, a kind of wood charcoal for residential use, is made after burning up to 66%. This reflects the situation that it had to be light for delivery from a long distance. In the late Silla, the environment of roof tile manufacturing around the royal capital had worse handicap of shortage in fuel supply than before. The roof tile makers around the capital in business could not help facing with troubles of fuel supply and lack of demand.

Moreover, as roof tiled buildings were spread to the public, it seems that they wanted to enjoy new life style. They became parasitic on temples and powerful local families and made the buildings magnificent with beautiful roof tiles. These physical references show that the same or similar roof tile designs of the royal capital were found in provinces.

Some started look abroad. Their trade business with Japan thrived and they enjoyed their new lives, but some incidents forced them to used their own techniques. As stated in the True *History of Three Reigns of Japan*(日本三代實錄), the tragic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869 destroyed *Taga castle*(多賀城) of Mutsu province(陸奥國) as well as its ancillary temple, Mutsu Kokubunji(陸奥國分寺), and Mutsu Kokubun-niji(陸奥國分尼寺), and demand of roof tiles dramatically increased. The former roof tile makers in trading business in Japan were forced to make roof tiles again. This is not unreasonable because unemployed roof tile makers in the late Silla went to Japan to live their lives.